

플라톤 대화편의 해석학적 원칙 (II)*

- 술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기본 입장과 그 사상적 배경 & 에소테릭과 엑소테릭에 대한 플라톤의 해석학적 숙고를 중심으로

임 성 철**

주제분류 고대 희랍 철학, 해석학

주요어 플라톤, 술라이어마허, 솔레겔, 피히테, 구두적 원리론, 수용미학, 에소테릭, 엑소테릭, 문학개념, 철학개념, 내적 구두성, 희극적인 것, 유희, 진지한 것, 문자비판, 원리이론적 관점, 해석학적 순환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술라이어마허의 플라톤 대화편에 대한 해석학적 입장의 기본 노선과 그 기저를 확인하고, 그의 대화편에서 엑소테릭과 에소테릭의 해석학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향연』에 나타난 플라톤의 해석학적 숙고의 의미를 『파이드로스』의 문자비판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본다. 솔레겔과 술라이어마허의 발전적 입장은 철학적 사유의 내적 역사와 청자의 특성으로 간주되는 내적인 에소테릭을 통해 플라톤의 정신적 발전을 확인해 나가는 것을 그 해석학적 원칙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대화편을 열다’라는 의미는 문자화되지 않은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대화편과 구두적 변증술의 동일한 선상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인식으로 향하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관여를 뜻한다. 술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특징은 플라톤의 문학개념이 갖는 내적 구두성의 의미를 간과한다.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에서는 문학적 묘사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구조는 『파이드로스』에서는 외적인 것과 유희로서의 문학적 묘사와 구두적 변증술로서의 내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문학적 묘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사로부터 내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진지함, 즉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인식해야 하는 힘을 의미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구두성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해의 인격성, 장기적(長期的)인 것, 피드백을 전제로 한다.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전달함은 플라톤에게서 문자의 재기억과 보존이 아닌 구두성에 의존한다. 역사적 플라톤의 철학을 고찰한다는 것은 해석학적 순환의 길에서 문자화된 것과 문자화되지 않은 것을 상호 이해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수용 미학적 관점을 원리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플라톤 대화편의 해석학적 원칙을 플라톤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I. 들어가는 글

19세기와 20세기 플라톤 대화편 해석사에서 확인되는 플라톤 철학을 고찰하는 주된 연구 관점으로는 주지하다시피 과학적 관점, 종교적-신학적 관점, 예술적 관점, 실존주의적-심리학적 관점, 윤리적-정치적 관점, 언어 분석적-논리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그리고 수용 미학적 관점을 들 수 있다¹⁾. 이 가운데 특히 ‘수용 미학적’ 관점은 철학의 문자성과 구두성과 관련해 플라톤의 대화편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반된 해석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각적인 설명 시도는 플라톤의 전체 대화편 이해를 위한 해석학적 원칙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플라톤 철학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한 가지 진영은 플라톤의 철학을 ‘비체계적인’ 것, 즉 그의 철학은 비체계적이고 그것의 본질은 개방적인 것이며, 중요한 물음은 해결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쟁적으로 남는다고 여기고 그의 철학적 사유를 논쟁적으로 ‘발전하는’ 가르침의 성격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은 18세기 낭만주의자이자 신학자로 성서해석학을 기초로 일반해석학의 토대를 마련한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1768-1834)에 의해 확립된다. 쉐라이어마허의 관점은 후일 K. F. Hermann, F. Susemihl, G. Grote 등에 의해서 승계된다. 이와 다른 진영은 그의 철학을 ‘체계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의 대화편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구두적 원리론(mündliche Prinzipienlehre) 혹은 원리변증술(Prinzipiendialektik)에 기반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L. Robin, J. Stenzel, H. Gomperz, P. Wilpert, C. J. de Vogel 등의 연구를 새롭게 조명한 한스 크레머에 의해서 주창되며, 그 논의는 튀빙엔

1) 참조 임성철, 「플라톤 대화편의 해석학적 원칙 (I)」, 『인문학연구』 34권, 2007, 484-485.

학파의 일원으로 불리는 K. Gaiser, Th. A. Szlezák, 그리고 G. Reale 등에 의해 확대 강화된다.

18세기 이후 슐라이어마허와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해 온 플라톤 대화편에 대한 해석학적 원칙에 따르면, 모든 철학적 지식은 글을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며, 철학적 의사소통은 문자적 서술의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독자의 언어 분석 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자와 독자 사이의 글을 통한 간접적 의사전달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자에게 부여된 철학적 사유 역할은 지식의 무제한적 유포 가능성을 독자 자신의 삶의 지평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슐라이어마허는 자신의 플라톤 번역 <서문>²⁾에서 형식은 내용을 위해 절대적인 것이며, 형식과 내용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밝힌다. 슐라이어마허는 철학적 사유의 전달과 수용을 독자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텍스트 이해의 진정한 주인공이 독자임을 언급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구술 언어로 표현된 모든 내용은 문자언어로 서술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독자는 자신의 이해 능력에 따라 대화편의 외적인 형식으로부터 내적인 내용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다.

반면, 슐라이어마허가 주장한 해석학적 관점을 근대적인 오해와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스 크레머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해야함을 천명한다. 크레머는 역사적인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그 자신이 저술한 대화편들과 아카데미아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 전승된 자료를 통해 통일적인 맥락에서 논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플라톤이 자신의 아카데미아에서 구두로 강연한, 즉 아카데미아 내부의(innerakademisch, esoterisch) ‘문자화되지 않은 학설’(agrapha dogmata)에 근거를 둔 플라톤의 체계적 ‘원리론’³⁾을 통해 그의

2) Fr. Schleiermacher, *Platons Werke*. Ersten Theils erster Band, Berlin 1804, ³1855, 5-36[Nachdruck: K. Gaiser(Hrsg.), *Das Platonbild. Zehn Beiträge zum Platonverständnis*, Hildesheim 1969, 1-32].

문자화된 대화편을 해석하는 것이 역사적 플라톤의 모습을 규명할 수 있는 해석학적 입장이라고 밝힌다. 크레머의 연구 견해와 더불어 시사하는 바가 많은 해석 관점으로는 지오바니 레알레⁴⁾가 토마스 쿤(Thomas Kuhn)의 이론을 차용해 주장한 세 가지 패러다임, 즉 (a) (17세기와 18세기까지 인정받은) 신플라톤주의적 패러다임, (b) 낭만주의적 패러다임, (c) 간접 전승과 연관된 패러다임을 들 수 있다. 레알레에 따르면, 플라톤의 간접 전승에 기초한 원리론은 (a)를 통해 철학사에 수용되며, 신플라톤주의적 입장은 플라톤의 사상을 발전적-비체계적, 그리고 무한적 성찰이라는 (b)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입장을 통해 플라톤의 대화편 해석사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1950년에 이르러 (a)와 (b)를 종합하는 튀빙엔 학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Paradigmenwechsel)에서 주목할 점은 (b)의 입장이 플라톤 대화편과의 연관성 가운데 간접 전승을 근거로 역사적 플라톤의 모습을 재구성하려는 원리론을 노년(老年)의 플라톤 혹은 그보다 이후의 시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설명하려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간접 전승을 이해하는 입장은 그 어떠한 문헌상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⁵⁾ 크레머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은 ‘비역사적인’ 것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플라톤의 대화편을 발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되고, 문학적 실증주의(Positivismus)에 따라 글로 쓰이지 않은 전승 자료를 단지 우연적이고 잠정적으로 문자화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자세이다. 그 까닭은

-
- 3) 참조. J. Wipperfurth(ed.), *Das Problem der ungeschriebenen Lehre Platons*, Darmstadt 1972; H.-J. Krämer, “Retraktionen zum Problem des esoterischen Platon”, in: *Museum Helveticum* 21, 1964, 137-167; M.-D. Richard, *L'enseignement oral de Platon: une nouvelle interprétation du platonisme*, Paris 1986.
- 4) G. Reale, *Zu einer neuen Interpretation Platons. Eine Auslegung der Metaphysik der grossen Dialogen im Lichte “ungeschriebenen Lehren”*, Paderborn ²2002, 27-131.
- 5) 임성철, 「플라톤 대화편의 해석학적 원칙 (I)」, 『인문학연구』 34권, 2007, 490.

플라톤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그 당시 구두성에서 문자성으로의 과도기에 이 두 가지를 서로 결합시키려 한 철학자이다.”⁶⁾ 크레머는 이러한 점을 “제외성(Ausschliesslichkeit)이 아닌 ‘보충성’(Komplimentarität) 차원의 관계로 설명하고, 문학 저술상의 (literarisch) 전통과 고전 문헌 전승상의(doxographisch) 자료라는 두 가지 전통을 ‘해석학적 순환’ 가운데 서로 중개하는 것, 다시 말하면 플라톤 철학의 전체와 부분을 서로 연관지어 이해하는 것을 플라톤 연구의 핵심 과제로 삼는다.”⁷⁾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는 II장에서는 슬라이어마허의 플라톤 대화편에 대한 해석학적 입장의 기본 노선과 그 기저를 파악해 슬라이어마허의 관점이 플라톤적인가를 확인해 보고, 이어 III장에서는 플라톤 대화편에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즉 엑소테릭(Esoterik)과 에소테릭(Exoterik)의 해석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연』의 마지막 구절에 나타난 플라톤의 해석학적 숙고의 의미가 『파이드로스』의 문자비판의 측면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이는 플라톤이 자신의 대화편 『파이드로스』에서 언명한 문자비판의 해석학적 숙고를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일이며, 플라톤의 ‘문학개념’(Literaturbegriff)에 나타난 ‘내적 구두성’(innere Oralität)의 의미를 플라톤적 의미에서 확인하는 연구 작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6) H.-J. Krämer, “Zum neuen Platon-Bild”,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55, 1981, 1-18; “Altes und neues Platonbild”, in: Méthexis 6, 1993, 95-114; “Das neue Platonbild”, in: Zeitschrift für philosophische Forschung 48, 1994, 1-20; “Platons Philosophie der Prinzipien”, in: Platonismus im Orient und Okzident, hrsgg. von R. G. Khoury/J. Halfwassen, Heidelberg 2005, 13[임성철, 「플라톤 대화편의 해석학적 원칙 (I)」, 『인문학연구』 34권, 2007, 490-491에서 인용함].

7) 임성철, 위의 논문, 491. 참조 H.-J. Krämer, “Zum neuen Platon-Bild”,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55, 1981, 14.

II. 술라이어마허의 플라톤 대화편 해석 기본 입장과 그 형성 배경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법률』, 『크리티아스』, 『편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편을 번역한 술라이어마허⁸⁾는 플라톤 대화편의 번역 <서문>에서 자신의 해석학적 지침에 입각한 플라톤의 대화편의 해석학적 특징을 밝힌다. 이 30페이지 분량의 <서문>은 플라톤 대화편 해석에 대한 정신사적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플라톤 연구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단일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 <서문>에서 술라이어마허가 제시하는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타난 해석학적 특징은 플라톤이라는 작가의 이해, 그가 작성한 작품의 형식, 그가 텍스트를 통해 의도하는 것,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서술상의 문학적 기법이라는 다섯 가지 특징 가운데 드러난다.⁹⁾ 이 특징은 대략 아래 도표에 언급한 내용과 같다.

구분	술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입장
저자	(a) 플라톤은 철학자이자 예술가이다. (b) 그는 대화편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말한다. (c) 그는 가르침의 경우에는 에소테릭한(esoterisch) 행위를, 그리고 서술의 경우에는 엑소테릭한(exoterisch) 태도를 취한다.
작품	(a) 플라톤에게서 대화편의 형식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 없다.

8) 술라이어마허는 2년간 독일 Halle에서 고전 언어학을 배웠다. 그렇다고 해도 설교자인 그를 고전 언어학자나 철학사가(哲學史家)로 볼 수는 없다.

9) 참조. Th. A. Szlezák, “Friedrich Schleiermacher und das Platonbild des 19. und 20. Jahrhunderts”, in: J. Rohls/G. Wenz(Hg.), Protestantismus und deutsche Literatur”, Göttingen 2004, 125-144[= <http://www3.nd.edu/~plato/plato2issue/Szlezak.htm>, 검색일자: 2014년 4월 1일].

	<p>(b) 그의 작품에는 ‘자연적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대화편의 철학적, 변증술적 그리고 연대기적 연속에서 드러난다.</p> <p>(c)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는 ‘문자화되지 않은 학설’에 대한 보고는 대화편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플라톤의 문자화된 대화편은 그의 철학을 온전하게 담고 있다.</p>
의도	<p>(a) 플라톤은 독자에게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자극하고 고양시키려 한다.</p> <p>(b) 그 결과, 독자는 저자가 의도한 사고의 내적인 생산물을 얻게 된다.</p>
영향	<p>(a)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편 서술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피하고자 한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p> <p>(b)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독자는 ‘내적인 것’의 진정한 청자(聽者)가 된다.</p> <p>(c) 에소테릭은 독자의 영혼 안에서 발생하는 해석학적 사건이다.</p>
문학적 기법	<p>(a) 개별적 대화상대자와의 우회적인 개시</p> <p>(b) 의도를 갖는 임의적인 전개</p> <p>(c) 개념들을 통한 변증술적 교체</p> <p>(d) 다양한 관점들이 결합이 없는 상태로 다른 관점에 대한 논구로 시작됨</p> <p>(e) 많은 의미들이 낫선 그리고 우연적인 방식으로 남겨짐</p> <p>(f) 의도한 사고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 모순 가운데 수수께끼로 남겨짐</p> <p>(g) 더 큰 목적은 더 작은 목적 가운데 숨겨짐</p> <p>(h) 전체 서술의 중요한 것이 연관성 없이 가볍게 암시만 됨</p> <p>(i) 논구의 결론에 대한 언급이 없음</p>

이러한 해석학적 입장을 취하는 슐라이어마허는 플라톤의 대화형식이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조야한 방식이 갖는 계몽적인 상황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단지 하나의 쓸모없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그는 “진정으로 플라톤적인 형식”의 법칙을 『파이드로스』편의 결말 부분에서 직접 이끌어 내며, 이러한 법칙을 “철학적 의사 전달에 대한 플라톤적 사고의 당연한 결과”로 여긴다. 그리고 슐라이어마허는 그 당시의 빌헬름 고트리프 테네만(Tennemann, 1761-1819)이 제시한

관점, 즉 진정한 철학자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문자로 남기지 않으며, 오로지 철학적 친구들과 논구한다는 입장에 반대한다¹⁰⁾. 칸트주의자인 테네만은 역사의 객관적인 영역에서의 에소테릭을 인정하며, 플라톤이 자신의 대화편을 이해하는 특정한 독자를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슐라이어마허의 경우도 철학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에소테릭하고 그리고 엑소테릭한 것으로부터 유지되어 온 아주 광범위하게 유포된 전승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이러한 것을 논구하지는 않는다¹¹⁾. 결국 슐라이어마허에게서 독자는 내적인 것의 진정한 청자로서 텍스트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으며, 텍스트는 이에 적합한 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를 구분하게 된다. 슐라이어마허는 테네만과 자신의 입장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 점은 우리가 에소테릭한 것과 외적인 것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중요성일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점은, 독자가 내면적인 것의 진정한 청중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단지 독자의 특성만을 나타냈다는 것이다.”¹²⁾ 결국 슐라이어마허는 주관적인 이해의 수행 가운데 에소테릭을 옮겨 그것을 독자의 특성으로 만들어 놓는다. 따라서 슐라이어마허에게는 독자가 행하는 에소테릭한 독서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독자는 플라톤이 자신의 묘사 방식을 통해 숨겨둔 것들을 발견하는 실제적인 수강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슐라이어마허는 또한 독자가 개별 대화편을 전체로 고찰하는 일을 암호화된 철학적 의사 전달을 해독(Dekodierung)하는 일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힌다.¹³⁾ 그리고 플라톤에게서 각각의 대화편은 다른 대화편들과의 비교를

10) Fr. Schleiermacher, *Platons Werke*. Ersten Theils erster Band, Berlin 1855(3판), <서문> 10ff., 14, 29.

11) <서문> 10.

12) <서문> 16f.

13) <서문> 14.

통해서 동시에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슐라이어마허는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슐라이어마허가 내세우는 플라톤 해석학의 기본적 이해는, 다음 아닌 문자화된 대화는 독자 자신의 주도면밀한 조종을 통해 진정한 철학적 인식을 산출해 낼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 문자도 역시 아직 알지 못하는 독자에게 지식을 전달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¹⁴⁾.

후일 19세기에 프리드리히 니체는 바젤에서 행한 강의(1871/72)에서 플라톤과 슐라이어마허의 대립적 관점을 논구하면서, 슐라이어마허에게서 문자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차선의 방법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플라톤에게 문자는 기억의 수단으로서 오로지 지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이 중요성을 갖는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슐라이어마허가 내세운 가설은 『파이드로스』편의 설명과 모순 관계에 서며, 그러한 설명을 잘못된 해석을 통해 대변하는 것이라고 니체는 결론짓는다. 그리고 니체는 플라톤에게서 문자는 결코 가르침과 교육의 목적이 아니며, 『파이드로스』편의 설명은 아카데미아의 존재를 전제하고, 문자는 아카데미아 회원들을 위한 기억의 수단이라고 언급한다¹⁵⁾. 하지만 20세기 이후 플라톤 대화편 해석의 주를 이루는 대화이론은 슐라이어마허에 맞서는 니체의 입장보다는 슐라이어마허가 기초를 놓은 대화편의 외적 형식과 내적 내용 사이의 긴장감을 강조하는, 그리고 대화편의 자족성을 내세우는 낭만주의적 입장에서 그 기초를 둔다.

18세기에 슐라이어마허가 주장한 그리고 당시 철학자들이 이해한 이러한 플라톤의 대화편을 해석하는 입장이 과연 플라톤적인가라는 물음을 답하기 위해 슐라이어마허가 제시한 해석학적 입장의 사상적 근원과 그것의 성립 배경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18세기

14) 비교. <서문> 16.

15) *Nietzsche's Werke*, Band XIX, Dritte Abteilung: Philologica, Band III: Unveröffentlichtes zur antiken Philosophie, hrsg. von Otto Crusius und Wilhelm Nestle, Leipzig 1913, 239-241.

독일의 ‘낭만주의적 무한주의’(romantischer Infinitismus)의 기본 입장에 따르면, “플라톤에 있어서 철학은 끝이 없는 사고의 여정(旅程)이자, 최종적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단한 추구(Streben)와 찾음(Suchen)이다. [sc. 그리고] 철학자는 스스로가 즉시 문제점으로 삼게 될지 모르는 것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철학적 명제들은 언제나 일시적인 명제이며, 철학적 진리는 언제나 추구되는 것이기에 절대적 지식을 곧 바로 전달할 수 없다.”¹⁶⁾ 이러한 시각은 ‘무한적 성찰’을 주도적 원리로 내세운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1762-1814)와 초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프리드리히 쉴레겔(1772-1829)이 주도한다. 여기서 특히 쉴레겔의 ‘발전적-비체계적’ 관점은 슬라이어마허에게 플라톤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상적 기저를 제공하며, 이는 피히테로부터 그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피히테에게서 철학의 과제는 “상기(Anamnesis)의 복귀(Regress) 가운데 자연적 의식의 근거를 묻는 데 있으며, 비자아(Nicht-Ich)를 통한 원초적 자아(Ur-Ich)의 실천적으로 의도된 자기 제한을 갖는 자아의 의식사(Bewußtseinsgeschichte)를 해명하는 데에 있다. 자기 제한의 도덕적 의미는 자아와 세계, 즉 비자아, 이론과 실천 사이의 통일을 요구하지만, 끊임없이 무한적인 것으로 향한 추구하고 활동으로 인간의 본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채, 당위(Sollen)로 인간을 이끈다. 결국, 피히테에게 인간의 과제는 실천적인 면에서 무한성을 감당하는 것이며,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것으로 진행되는 ‘성찰’(Reflexion)에 있다. 이는 자기계몽과 자기투시성(Selbstdurchsichtigkeit)으로 이끌지만, (그러나 실천적 추구의 안정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는 못한다. 피히테가 절대적 자아(das absolute Ich)를 통해 성찰의 무한성을 극복하려한다면, 쉴레겔은 성찰의 매개물로 절대성을 파악한다. 쉴레겔에게 원초적 자아는 바로 절대성이며, 무한히 충족되는 성찰의 실질적 내용이다. 이에 따라,

16) 토마스 알렉산더 쉴레작, 『플라톤 읽기』, 서울 2001, 56-59.

자아의 생각이 이 세상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때, 자아의 그 생각에 대한 순수한 사고는 영원한 자기성찰로 나아간다.”¹⁷⁾ 결국 슐레겔에게서 성찰은 ‘무한한’ 것으로 드러난다.¹⁸⁾

이러한 무한적 성찰을 통해 슐레겔은 플라톤의 대화편을 중단 없는 추

17) 임성철, 「플라톤의 Philosophia 개념에 대한 해석학적 논쟁에 관하여」, 『해석학연구』 17집, 2006, 284-285.

18) Fr. Schlegel, *Philosophische Vorlesungen aus den Jahren 1804-1806*, Bonn 1846, 21, 23. 참조. 임성철, 위의 논문, 286-287: “Schlegel에 따르면, 철학은 ‘무한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과의 관계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단지 예감될 뿐이며, 개념적 성찰을 통해서가 아닌 오로지 상징과 비유로써만 파악된다. 그 결과, 철학은 필연적으로 역사적이며, 무한적이다. 그리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 된다. 따라서 엄밀히 보자면 철학에는 오류가 없게 된다. Schlegel은 이를 통해서 해석학적 진리 개념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 Schlegel에게서 철학의 역사를 통해 그것에 대한 비판적·논쟁적 방법이 귀결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철학은 다른 철학 이론과 구분되고 맞서게 된다. 결국, Schlegel에게 철학의 ‘이념’(Idee)은 무한한 발전을 통해서 체계에 도달하는 것이며 가장 완성된 체계는 목표에로의 단지 접근일 뿐이라고 이해된다(Kritische Friedrich-Schlegel-Ausgabe[이하 K. A.로 줄임], 35 Bde., hrsg. von Ernst Behler. Unter Mitw. anderer Fachgelehrter, Paderborn 1958ff., XII, 10; K. A., XVIII, 413, Nr. 1106, 417, Nr. 1149). 여기에 덧붙여, Schlegel은 『회람 시학 연구』(Über das Studium der griechischen Poesie)에서 “alle Quanta [sind] unendlich progressiv”(Fr. Schlegel, *Schriften zur Literatur*, hrsg. Wolf Dietrich Rasch, Darmstadt 1972, 163. 비교. 116)라고 일반화시키며, 이것을 예술 그리고 철학적 미학에 있어서도 역시 무한한 완성지향능력(Perfektibilität)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이 완성지향능력은 Schlegel에 있어 추구와 무한적 자유와 관련된다. 시와 문화 영역 전체 그리고 학문과 철학뿐만 아니라, 한 작가의 전체 저술 혹은 부분작품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단편은 완성 지향적이다. 그러한 연유로 완결된 작품의 다양한 의미도 무한하며 결코 충분히 논구될 수 없다. Schlegel은 이를 통해 *Schleiermacher*보다 앞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학적 다변성(Multivalenz)*라는 현대적 이론을 예견하게 된다. Schlegel에게 “모든 개념, 증명, 명제는 무한적으로 완성 지향적이다”(“jeder Begriff, jeder Erweis, jeder Satz” [ist] “unendlich perfektibel”, K. A., XVIII, 506, Nr. 12, 518, Nr. 9). 이 점은 무한히 발전하는 개별적 자아가 특히 ‘의식’(Bewußtsein)을 단편적으로 접하게 되고, 이것을 단지 단편적으로 전달할 능력이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이와 부합하게 Schlegel은 ‘체계’를 단지 단편들의 체계로 파악하고, 자신을 “단편적인 조직자”(fragmentarischer Systematiker, K. A., XVIII, 97, Nr. 815)라고 부른다.”[각주에 있던 출처 표기를 필자가 상기 인용문에 삽입함].

구와 탐구의 예술적 묘사로 이해하고, 이를 독자가 숙고하기를 원한다¹⁹). 플라톤의 철학에 나타난 최상의 것과 신적인 것은 술레겔에 따르면 철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암시될 뿐이다²⁰). 따라서 그의 대화편의 형식과 이에 묘사된 상징적-비유적 묘사는 상대적인 것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게 된다. 궁극적으로 술레겔에게 인간의 이성은 무한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며, 철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noch nicht vollendet) 것이며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²¹). 이러한 까닭에 술레겔은 플라톤의 문학적 묘사의 원리를 플라톤적 사유의 내적인 형식에서 찾아야 하며, 플라톤 철학의 정신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식 가운데 플라톤의 철학적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B, 209). 이러한 측면에서 플라톤의 철학을 연구하는 논의 가운데 ‘내적인 발전’의 범주에로의 관심이 술레겔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크레머는 언급한다²³).

피히테의 무한적 성찰에 영향을 받은 술레겔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발

19) K. A., XI, 209.

20) K. A., XI, 118-125(“Charakteristik des Plato”): *Pariser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europäischen Literatur*(1803/04); K. A., XII 207-226 (“Philosophie des Plato”): *Kölner Vorlesung über die Entwicklung der Philosophie in zwölf Büchern*(1804/05); K. A., XIII, 203-210(“Von der sokratischen und platonischen Dialektik”): *Kölner Vorlesung über Propädeutik und Logik*(1805/06); K. A., XIII, 411-413: *Notizen für die Privatvorlesungen vor Frau von Staël*(1806/07).

21) K. A., XII, 208: “Vorausgesetzt, die Philosophie sei die positive Erkenntnis des unendlichen Wesens, so muß zugegeben werden, daß diese nie vollendet werden kann, mithin auch die Philosophie als Wissenschaft nicht; obgleich die ersten sicheren Prinzipien sich festsetzen lassen, von denen die Untersuchungen ausgehen soll; was aber aus diesen sich entwickeln läßt, ist unendlich, unbestimmbar.” 비교. 214(“die Philosophie als Wissenschaft selbst noch nicht vollendet.”).

22) K. A., XI, 209.

23) H.-J. Krämer, “Fichte, Schlegel und der Infinitismus in der Platondeutung”,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62, 1988, 602.

전적’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⁴⁾. (a) 술레겔은 “증가 혹은 강화”(Potenzieren)를 플라톤의 철학에 적용해, 보충으로서의 증가를 성찰의 관점에서 심사숙고와 동일하게 여긴다. (b) “자신의 견해를 보고하고, 보충하며, 완성하는 일”(seine Ansichten zu berichtigen, zu ergänzen, zu vervollkommen)에 플라톤은 몰두한다. 따라서 플라톤의 철학을 이어받은 후계자들은 그의 철학 사상을 완결하는 첫 번째 보충자들이다. (c) 플라톤은 “이주 발전적 사상가로서 그의 철학 혹은 그의 묘사를 완결하지 못한다”(K. A., XII, 212. 비교. 211: “als durchaus progressiver Denker entweder mit seiner Philosophie oder mit ihrer Dartsellung nicht fertig geworden.”)고 술레겔은 주장하고, 이를 통해 플라톤에게서 철학적 대상의 무한정함과 도달불가능성을 인정한다. 이는 술레겔이 플라톤의 사상을 무한한 ‘완성지향능력’(Perfektibilität)과 인간 정신의 ‘성찰지향능력’(Reflektibilität)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d) 이러한 시각에서 술레겔은 플라톤의 개별 대화편과 전체 저작 가운데 무제한적인 것에서의 ‘무완결성’(Unabgeschlossenheit)과 ‘열려있음’(Offenheit)을 인정한다. 무한성에 기초하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독자는 대화편의 배열 순서를 구성할 수 없다(비교. K. A., II, 415f.; III. 50). 결국 술레겔은 ‘계층가설’(Schichtenhypothese)을 통해 플라톤의 대화편이 우연적인 혹은 의도적인 측면에서 단편이라고 판단한다. (e) 술레겔은 플라톤의 ‘반어’(Ironie) 개념을 무한적 성찰과의 연관성 가운데 고찰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플라톤에게서 소크라테스적 반어를 ‘형이상학적’ 기능과 ‘비판적-논쟁적인’ 기능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형이상학적 기능은 인식의 최고 대상의 무한함을 주목하도록 만들며, 비판적-논쟁적인 기능은 독단적 지식욕을 억제하게 하고, 지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24) H.-J. Krämer, 위의 논문, 603-605[임성철, 「플라톤의 Philosophia 개념에 대한 해석학적 논쟁에 관하여」, 『해석학연구』 17집, 2006, 289-291에서 (a)-(e) 내용을 인용함].

하고 상기를 통하여 최상의 것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독자를 유도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을 근거로 슐레겔은 플라톤의 철학함이 철학적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과 무한적 발전을 통해 본질적으로 ‘비체계적’이라는 사실을 결론짓는다. 결국 슐레겔에 따르면, “플라톤 [철학]은 체계를 갖지 않은 단지 하나의 철학일 뿐이다”²⁵⁾. 그리고 그의 “철학 자체는 완성되고 완결된 체계가 아니며, 그의 전체 저술은 최종적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단지 시작된 탐구이다”²⁶⁾. 결과적으로 슐레겔이 이해하는 플라톤의 대화편에 대한 해석학적 입장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체계의 완성에 입각한 가르침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플라톤 철학의 통일성은 그의 대화편들의 배후에서가 아닌 그것들 자체 가운데 있고, 그의 사상은 일정한 과정 가운데 찾아야한다는 사실이다.

플라톤의 철학적 사유를 다이내믹하고 생동감 넘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슐레겔과 슐라이어마허의 발전적 입장은 철학적 사유의 내적 역사와 청자의 특성으로 간주되는 내적인 에소테릭을 통해 플라톤의 정신적 발전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그 해석학적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플라톤 대화편 해석에서 슐레겔과 그의 사상적 영향가운데 형성된 슐라이어마허의 낭만주의적 해석 입장은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scher Zirkel)의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인가? 슐라이어마허는 부분이 전체를 통해 그리고 전체는 부분을 통해 체계적인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 즉 전체와 부분의 상관관계의 조명을 통한 ‘유기론적’ 통일의 이념에서 ‘이해의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해석학적 순환으로 설명한다²⁷⁾.

25) K. A., XI, 118; XII, 209: “Platon hatte kein System, sondern nur eine Philosophie.”

26) K. A., XIII, 382; K. A., XIII, 411-413: “Die Philosophie selbst aber ist gar nicht als ein fertiges, geschlossenes System anzusehen, vielmehr enthalten alle seine Werke nur angefangene Untersuchungen, die aber bis zur letzten Vollendung nicht durchgeführt sind.”

27) *Hermeneutik*. Die kompendienartige Darstellung von 1819, IX 19, XX 3, ed.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술라이아마허는 저자와 독자 간의 구조적인 일치(Homologie) 그리고 독자의 개성(Individualität)을 든다. 사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 264c에서 대화편의 이해를 위한 유기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 모든 연설은 마치 생명체와 같이 유기적인 짜임새에 따라 자신에게 속한 몸을 갖추고 있어서, 머리가 없거나 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간과 마지막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에 대해서나 전체에 대해서 적절한 관계 속에 있도록 쓰여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조대호 역, 이하 동일 역자]

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유기적 관계는 플라톤의 “해석학적 순환의 지극히 놀랄만한 선취”²⁸⁾를 통해 문자화된 대화편의 이해가 문자가 다루는 대상에 대한 선(先)-이해(Vor-Kenntnis)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과, 플라톤이 논박하고자 한 것이 문자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의 가치가 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통해 이해해야 할 것이다²⁹⁾. 플라톤은 이 점을 『파이드로스』 275c-d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기술을 문자에 담아 남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문자로부터 무언가 명석함과 확실함이 생겨나리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속에 순진함이 가득한 사람일 것이고, 글로 쓰인 말들이 이미 앎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글들이 다루는 것을 상기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참으로 암몬의 예언에 대해 무지한 사람일세. (...) 글쓰기에는 뭔가 이런 기이한 점이 있으니, 그것은 사실 그림 그리기와 똑같네. 거기서 생겨난 것들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보이지만, 자네[필자: 이하 대화상대자 파이드로스를 말함]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무겁게 침묵한다네. (글로 쓰인) 말들도 똑같지. 자네에게는 그것들이 마치 무언가

Kimmerle.

28) G. Reale, *Zu einer neuen Interpretation Platons. Eine Auslegung der Metaphysik der grossen Dialogen im Lichte “ungeschriebenen Lehren”*, Paderborn ²2002, 658.

29) 임성철, 「플라톤의 Philosophia 개념에 대한 해석학적 논쟁에 관하여」, 『해석학연구』 17집, 2006, 317(각주 72번).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글에 담긴 것들 가운데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언제나 똑같이 하나만을 가리킨다네.” 플라톤은 위 인용문보다 더 뒷구절(278a)에서 이러한 사실을 뚜렷한 어조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으로 그 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들은 앎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상기일 뿐이네.”

III. 대화편 내용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대한 플라톤의 해석학적 숙고

- 『향연』의 결말 부분과 『파이드로스』의 문자비판을 중심으로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라톤의 철학적 사유는 그의 대화편을 발전적-비체계적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체계적-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반된 해석의 차이를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플라톤의 대화편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해석학적 문제를 야기하며, 필자는 이를 플라톤의 해석학적 숙고가 담겨 있는 『향연』의 결말 부분과 『파이드로스』의 문자비판을 중심으로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대화편의 에소테릭과 엑소테릭, 즉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관계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술라이어마허 이후 플라톤의 대화편에 대한 해석 관점 논의는 대화편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즉 표면상의 외적인 구조와 내적인 차원의 문제에 그 초점을 둔다. 즉 술라이어마허는 외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편의 표현법과 드라마적인 연출을 통해 대화편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편 전체의 연관성과 목적은 전달될 수 없고 단지 암시될 뿐이라는 차원에서 독자의 특성에 내적인 것의 해석을 내맡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독자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대화편의 내적인 중요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편의 내적인 것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독자는 대화편이라는 텍스트를 올바르게 ‘열어야한다’는 것을 플라톤 자신은 『향연』의 결말 부분에서 언급한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실레노스 조각상들과 사티로스 연주자들과 비교하며, 외관상 우습고 무지한 인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는 소크라테스가 그 자신의 내적인 면에 영혼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지닌 것으로 설명한다(216d, 219d-219a). 이 점을 알키비아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sc.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 이야기들의 열려진 모습을 보고 그 내부에 도달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우선 그 내부가 지성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가장 신성하고 가장 많은 탁월성을 지닌 신상들이 들어 있으며, 더 나아가 훌륭하게 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모든 것에 가장 넓게 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네.”(222a, 박희영 역, 이하 동일역자) 이와 관련해 알키비아데스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세 가지 단계, 즉 (a) 외적이며,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외관상의 영역, (b) 내적이고 영혼적 가치를 지니는 영역, 그리고 (c) 신적이며, 아름다움과 좋음 그 자체의 영역으로 구분한다(216d-217a). 그리고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외관에 내적인 진리가 담겨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진리는 완전함 그 자체, 즉 최상의 목적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알키비아데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나 이분[sc. 소크라테스]이 진지한 상태에 몰입하여 그 내부가 실레노스 조각상처럼 열려졌을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신상을 본 사람이 있는지, 나[sc. 알키비아데스]로서는 그 점이 의심스럽네. 그렇지만 나는 이미 그 신상을 본 적이 있다네. 그것은 성스럽고 황금빛 광채를 띠고 있으면서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고 경이로웠기 때문에, 그뒤부터 나는 소크라테스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곧장 실천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네.”(217a)

여기서 필자는 플라톤이 알키비아데스를 통해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

인가를 묻게 되며, 그것은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의 본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소크라테스의 본질이란 소크라테스의 로고스를 말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흥분하며 단정하지 못한,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외적인 모습과, 깊은 경건함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내적인 모습 사이의 긴장감이 『향연』의 알키비아데스의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이는 소크라테스적 로고스들의 외적이며 내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긴장감 가운데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로고스들을 실제로는 열 수가 없다³⁰⁾. 그 이유는 대화에 너무 늦게 도착한 알키비아데스³¹⁾는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간의 철학적 토론의 가르침들을 알지 못하며, 구두수선공과 제혁공에 대한 유추와 그러한 로고스를 여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에로틱한 기분 가운데 아름다움의 단계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로고스들을 분명히 열 수가 없다³²⁾. 대화편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알키비아데스의 능력을 망각하는 사람은 알키비아데스가 말하는 로고스를 열어 본다는 것(참조. 『향연』 221 d f.)

30) Th. A. Szlezák, *Platon und die Schriftlichkeit der Philosophie. Interpretationen zu den frühen und mittleren Dialogen*, Berlin-New York 1985, 267-268.

31) 참조. 토마스 알렉산더 슬레작, 『플라톤 읽기』, 서울 2001, 149-150: “만일 우리가 알키비아데스의 늦은 도착을 플라톤의 의식적이며 표현력 있는 희곡 작법상의 결정으로서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대화편들의 ‘열기’(...)에 있어서 정확하고도 중요한 하나의 해석학적 원칙(Maxime)을 실제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플라톤이 ‘열기’를 archai(아카이)로 향하는 길 위에 계속해서 상승하며 이끄는 보다 더 체계적인 철학적 로고스들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해석학적 방법으로 아주 분명하게 소개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키비아데스는 ‘열기’를 위한 플라톤적 보증인은 물론 아니다; 그는 결정적인 철학적 내용에 대한 뚜렷한 가르침 없이는 ‘열기’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플라톤적인 예인 셈이다.”

32) Th. A. Szlezák, *Platon und die Schriftlichkeit der Philosophie. Interpretationen zu den frühen und mittleren Dialogen*, Berlin-New York 1985, 267: “doch die ‘Öffnung’ dieses verschlüsselten Ansatzes zur vollen Eros-Philosophie hin wollte ironischerweise gerade dem nicht gelingen, der solche Dialog-‘Öffnung’ als hermeneutisches Prinzip anbietet.”

을 술라이어마허의 대화이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슬레작은 지적한다.³³⁾

이러한 사실은 플라톤의 대화편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찰하도록 만든다. 첫째로 알키비아데스가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로고스들은 알키비아데스 자신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이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묘사하는 문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향연』의 마지막에 언급된 소크라테스의 테제, 즉 “희극을 쓸 줄 아는 것과 비극을 쓸 줄 아는 것이 동일한 사람에게 속할 수 있고 따라서 비극을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희극도 쓸 수 있다”(223d)는 것은 플라톤 자신만의 저술 작업과 관련된다. 플라톤의 대화편은 희극과 비극이 연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알키비아데스가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로고스들은 ‘희극적인 것’(geloion)과 ‘진지한 것’(spoudaion)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바이다. 플라톤에게서 희극적인 것은 우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 진지함을 가리킨다. 이는 다시금 인간적 ‘유희’(paidia)와 연관된다. 결국 플라톤이 알키비아데스의 이야기와 『향연』의 마지막 테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플라톤 자신만의 고유한 문학적 묘사로서의 소크라테스적 로고스들, 즉 로고이 소크라티코이(logoi sokratikoi)이다. 이것들을 가지고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독자는 대화편 내용의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영역으로부터 진리와 훌륭함으로 이끄는 내적인 것을 추론해야 하는 것이다. 『향연』에서 ‘가장 내적인 것’은 문학적 묘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며, 단지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문학적 묘사는 소크라테스의 구두적 로고스의 모방일 뿐이다. 하지만 이 모방은 에피스테메(episteme)에 의해서 행해진다.

‘로고스를 열다’는 것은, 『향연』에서 알키비아데스가 디오티마의 에로스론에 비추어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지적하는 것

33) Th. A. Szlezák, 위의 책, 268(각주 49번).

처럼, 대화편 안의 다양한 진술들의 결합을 통한 텍스트 내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로고스를 열지 못하는 알키비아데스를 통해서 플라톤은 다른 대화편 내용 혹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논의된 철학적 가르침의 ‘도움’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한다. 이때 도움이란 술라이어마허가 말하는 독자가 행하는 본질적 인식을 위한 자발적인 사유 활동의 차원이 아닌, “더 높은 단계의 원리들 안에서 그의 원래적인 로고스를 위한 적절한 토대를 제시하기 위해서 주제를 일시적으로 벗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archai(원리들)를 인식하기 위한 길 위에서 앞서 나아감으로써 비판에 빠져든 그의 로고스를 변호하기 위한 대화주도자의 방법”³⁴⁾을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슬레작은 저자와 독자 간의 철학적 인식 전달의 한계와 조건이라는 해석학적 숙고를 통해 플라톤 대화편의 ‘형식’과 ‘내용’이 규정되기 때문에 플라톤의 저술은 수용미학적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에소테릭(Esoterik)의 두 가지 형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에소테릭에는 ‘해석학적’ 에소테릭, 즉 독자의 특성에 내맡겨진 ‘텍스트 내재적’(textimmanent) 에소테릭과, ‘역사적’ 에소테릭, 즉 ‘대화편을 넘어서는’(dialogübersteigend) 에소테릭이 있다. 슬레작은 후자를 텍스트에 고정할 수 없는 플라톤 ‘원리론’의 역사적 실재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며, 전자를 술라이어마허에게서 시작된 관점이라고 언급한다³⁵⁾.

플라톤의 『향연』에서 외적인 형태와 내적인 의미의 구분은 그가 『파이드로스』의 ‘문자비판’(Schriftkritik)에서 문자화된 것(문학적 묘사, paidia)을 외적인 것(exothen, 275a3)으로, 그리고 구두적 변증술을 내적인 것(spude)으로 표시한 것과 그 구조가 일치한다. 여기에서 외적인 것은 영혼의 내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기억이라는 내적인 것(endothen, 275a4)과

34) 토마스 알렉산더 슬레작, 『플라톤 읽기』, 서울 2001, 92-93.

35) 토마스 알렉산더 슬레작, 위의 책, 47.

는 대조를 이룬다. 문학 작품은 『제7서간』(341c)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구두적 변증술의 진지함과는 차이를 두는 유희이다. 『파이드로스』에서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이끄는 길은 문학 작품을 넘어서 독자를 영혼적인 것과 구두적인 가르침으로 인도한다.

『파이드로스』와 『향연』에 묘사된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진척되는 해석학적 방향 설정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고 할 수 있다³⁶⁾.

	『향연』	『파이드로스』 / 『제7서간』
구두적 변증술 (원리론)		내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진지함 (더 가치 있는 것들)

문학적 대화편	내적인 것(spoude) ----- 외적인 것(paidia)	외적인 것과 유희로서의 문자화된 것

‘대화편을 열다’라는 의미에서의 해석학적 지시는 슬라이어마허와 그의 추종자들이 지적하는 것과 달리, 문자화되지 않은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대화편과 구두적 변증술이라는 이 두 가지 것이 동일한 선상에서 더 높은 수준에서 통용되는 조건들로 향하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관여를 말하는 것이다. 말해진 것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플라톤의 텍스트들이 갖는 구조적인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비워둔 부분들(Aussparungsstellen)과 지시된 부분들(Verweisungsstellen)³⁷⁾, 감춤의 동기, 도움의 상황 등에서 잘

36) 비교. 임성철, 「플라톤 『향연』 결말 부분의 해석학적 의미」, 『철학논총』 47집, 2007, 350-351.

37) 『프로타고라스』 56e8-357c1, 『메논』 76d3-77b1, 『파이돈』 107b4-10, 『국가론』

나타난다. 이 가운데 플라톤이 의식적으로 대화 내용가운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문제점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가 그러한 문제점을 남겨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일 것이다. (a) 플라톤 자신은 문제의 해결책을 아직 모르고 있다. (b) 독자 자신이 그것을 구하고 찾아야만 한다. (c) 플라톤은 그것을 다른 대화편에서 충분히 다루었거나 혹은 다룰 것이다. (d) 플라톤은 기존의 사고와 말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문장으로 적절하게 재현할 수 없는 사태와 인식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부족함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자 한다. (e) 플라톤은 이러한 문제와 부족함을 구두적 변증술을 통해 확인하도록 대화편에서 지시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학적 묘사는 이를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것을 인정한다.

슬라이어마허 이후 텍스트 내재적인 에소테릭은 앞서 언급한 (d)와 (e)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플라톤의 대화편을 해석하는 원칙을 제공한다. 이는 플라톤의 ‘철학개념’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차이점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³⁸⁾. 이러한 차이점은 플라톤의 철학개

506d2-507a2, 509c1-11, 『파르메니데스』 136d4-e3, 『소피스테스』 254b7-d3, 『정치』 284d1f., 『티마이오스』 28c, 48c, 53d, 『법률』 894a.

38) 참조 H.-J. Krämer, “Zur aktuellen Diskussion um den Philosophiebegriff Platons”, in: *Perspektiven der Philosophie* 16, 1990, 99-101: “Ferber가 ‘antiesoterische Interpretationsregel’이라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고 Krämer는 지적한다. 즉 이 해석규칙에 따르면, 플라톤의 대화편은 “문자화되지 않은 학설”이 아니라, 아마도 반대로 이 이론이 저 대화편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rämer는 이러한 입장이 플라톤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은 ‘해석학적 순환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플라톤 자신을 더욱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설명하려는 관점과 모순된다. 철학적 이론에 있어서 Ferber는 두 가지 전승 분과(Überlieferungszweig) 사이에서 드러나는 상호 지적하는 연관성을 무시하고, 대화편들의 자족성과 이해 가능성 그 자체만을 명백히 밝히려 한다. 특히, Ferber는 Weininger 법칙, 즉 “영원한 것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Ewiges [ist] eo ipso gut)라는 명제를 플라톤 철학에 적용해, 영원히 존재하는 실재로서의 이데아들이 선하다는 이유로 ‘선’(das Gute)은 이데아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Ferber는 이것을 진리의 근거로서 ‘선’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플라톤에게

념을 역사적 에소테릭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슐레겔 이후의 플라톤 철학에 대해 불가지론적 태도를 취하는가 혹은 그의 철학을 무한주의에 따라 이해하는가에서 기인한다³⁹⁾. 필자가 생각하기에 플라톤의 대화편의 해석학적 원칙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d)와 (e)의 가능성을 제외할 경우, 이는 플라톤의 내적 구두성의 의미를 왜곡하는 일이자 역사적 플라톤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해석학적 순환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오로지 영원한 것이 진리이며, 따라서 영원한 존재로서의 진리는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선한 것’과 동일시 여기는 문헌 근거가 플라톤에게서도 희랍 철학 그 어느 것에서도 전승되어 내려오지 않는다고 Krämer는 확언한다. Krämer는 플라톤의 텍스트에 Weininger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인 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영원한 것이 선할 경우 그 자체에 있어서 선함은 영원한 존재가 있음의 근거로 파악되지 않으며, 단지 그것의 특성이 갖는 근거인 것이다. 둘째로, 영원한 존재가 선하고 동시에 진실하다면, 선함은 진리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다. 플라톤에게 선은 진리와 지식의 근거로 간주된다(『국가』 508). 셋째로, 진리와 연관된 지식과 인식(episteme, gnosis)을 Weininger 명제를 통해 ‘좋은 종류의 것으로’(gutartig) 이해하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를 낳는다. 왜냐하면 한 면에서는 인식능력(Erkenntnisfähigkeit)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더 이상 포괄될 수 없는 변화 가능한 그리고 일시적인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연관 관계는 두 가지 것 사이의 상응하고 서로 연결하는 같은 종류의 것을 형성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면에서는 그 자체로 영원하고 그리고 진실하지만, 인식수행에 있어서 영원한 것 = 선함 = 진실한 것으로 소급될 수 없는 사유영혼의 변함없는 인식력(Erkenntniskraft)이 문제가 된다.”[위 인용문은 임성철, 『플라톤의 Philosophia 개념에 대한 해석학적 논쟁에 관하여』, 『해석학연구』 17집, 2006, 317-319쪽에서 인용한 것임]

- 39)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제시한 주요 개념들, 즉 ‘무한주의’(Infinitismus), ‘발전주의’(Evolutionismus), ‘전기주의’(Biographismus), ‘비체계학’(Asystematik), ‘형언할 수 없음’(Unsagbarkeit), ‘반어적 상대화’(ironische Relativierung), ‘신화적-비유적 은폐’(mythologisch-allegorische Verhüllung)는 플라톤 대화편 해석사에 영향을 주었으며, 슐라이어마허는 이 개념들을 비체계적-발전적인 관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단초로 삼았다.

IV. 나가는 글

슬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특징은 플라톤의 ‘문학개념’이 말하는 ‘내적 구두성’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술레겔의 사상적 영향 가운데 형성된 낭만주의적 플라톤 해석에서 강조되는 무한성은 고대 회랍의 사상, 특히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는 낯선 것이라는 점이다⁴⁰⁾. 그래서 그러한 사상적 특징을 통해 플라톤의 철학을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에서는 문학적 묘사의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의 구분을 통해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즉 현상으로부터 진정한 존재의 상승으로 나아가야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화편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소크라테스적 로고스들의 문학적 모방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파이드로스』에서는 외적인 것과 유희로서의 문학적 묘사와 구두적 변증술로서의 내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문학적 묘사로부터 내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진지함, 즉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인식해야 하는 함을 뜻한다. 결국 이러한 대화편들의 내적 그리고 외적 구조는 플라톤이 자신의 대화편 내용이 어떠한 해석학적 원칙에 따라 이해되어야만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플라톤의 대화편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문자가 가르침과 전달이 주가 아닌 문자로 받아들인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인식된 것의 기억과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파이드로스』에서 문자의 재기억 기능은 슬라이어마허의 대화 이론의 기저를 이루는 철학적 가르침의 과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플라톤은 문자를 태고 시절의 형태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내적 구두성을 강조한다. 플라톤

40) 비교. F. P. Hager, "Apeiron",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1, hrsg. von J. Ritter, Basel/Stuttgart 1971, 433-436.

에 따르면 구두성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소크라테스와 피타고라스의 경우처럼 이해의 인격성, 장기적(長期的)인 것, 피드백을 전제로 하며, 자신의 저술이 타인의 손에 내맡겨져 읽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화편의 프로트렙틱한(protreptisch) 선전효과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문자라는 재기억과 보존이 아닌 구두성에 의존한다. 플라톤의 구두성은 문자의 부수적 기능을 넘어서 글과 말의 내용적 차이로 이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서 내적 구두성은 문자로 저술된 것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파악을 요구한다. 결국 역사적 플라톤의 철학을 고찰한다는 것은 해석학적 순환의 길에서 문자화된 것과 문자화되지 않은 것을 상호 이해하도록 만드는 일인 것이다⁴¹⁾.

수용 미학적 관점이 플라톤 대화편의 해석사에서 중심 테마라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수용 미학적 관점의 고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고전 문헌 고증(考證)을 근거한 원리론의 입장을 이에 상응하는 고전문헌비판을 통해 반박해야 하며, 이를 회피한다는 것은 플라톤이 대화편에서 밝힌 해석학적 숙고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그의 철학 사상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일이라는 점이다⁴²⁾. 결과적으로 수용 미학적 관점을 ‘원리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플라톤 대화편의 해석학적 원칙을 플라톤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41) H.-J. Krämer, "Platons ungeschriebene Lehre", in: Th. Kobusch/B. Mojsisch(Hg.), Platon. Seine Dialoge in der Sicht der neueren Forschung, Darmstadt 1996, 252-254.

42) 임성철, 「플라톤 대화편의 해석학적 원칙 (I)」, 『인문학연구』 34권, 2007, 488.

참고문헌

(1) 일차문헌

- 플라톤, 『국가』, 박종현 譯註(서울 1997, 서광사).
_____, 『파이드로스』, 조대호 譯解(서울 2008, 문예출판사).
_____, 『향연』, 박희영 옮김(서울 2003, 문학과지성사).
Platonis opera recognovit brevique adnotatione critica instruxit Ioannes Burnet, Oxford 1903(OCT).
Fichtes Werke, hrsg. von Immanuel Hermann Fichte, 11 Bde., Leipzig 1971(Nachdruck).
Schlegel, Fr., *Philosophische Vorlesungen aus den Jahren 1804-1806*, Bonn 1846.
_____, *Schriften zur Literatur*, hrsg. Wolfdietrich Rasch, Darmstadt 1972.
Kritische Friedrich-Schlegel-Ausgabe, 35 Bde., hrsg. von Ernst Behler. Unter Mitw. anderer Fachgelehrter, Paderborn 1958ff.
Schleiermacher, Fr., *Platons Werke*. Ersten Theils erster Band, Berlin 1804, ³1855, 5-36 [= Nachdruck: K. Gaiser(Hrsg.), *Das Platonbild. Zehn Beiträge zum Platonverständnis*, Hildesheim 1969, 1-32].

(2) 이차문헌

- 토마스 알렉산더 슬레자, 「대화형식과 비의.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대화편 해석과 관련하여」, 『철학논총』 23집, 2001, 355-377.
_____, 「『파이드로스』의 구술적 변증술과 문자적 유희에 관한 소고」, 『철학연구』 77집, 2002, 103-125.
임성철, 「플라톤의 Philosophia 개념에 대한 해석학적 논쟁에 관하여」, 『해석학연구』 17집, 2006, 279-335.
_____, 「플라톤 대화편의 해석학적 원칙 (I)」, 『인문학연구』 34권, 2007,

465-499.

- _____, 「플라톤 『향연』 결말 부분의 해석학적 의미」, 『철학논총』 47집, 2007, 337-355.
- Albert, K., *Über Platons Begriff der Philosophie*, Sankt Augustin 1989 [= 『플라톤의 철학개념』, 임성철 옮김(서울 2002)].
- Gaiser, K.(Hrsg.), *Das Platonbild. Zehn Beiträge zum Platonverständnis*, Hildesheim 1969.
- Görgemanns, H., *Platon*, Heidelberg 1994 [= 『플라톤 철학을 위한 첫 걸음』, 임성철 옮김(서울 2006)].
- Hager, F. P., “Apeiron”,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1, hrsg. von J. Ritter, Basel/Stuttgart 1971, 433-436.
- Krämer, H.-J., “Fichte, Schlegel und der Infinitismus in der Platondeutung”,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62, 1988, 583-621.
- _____, “Retraktationen zum Problem des esoterischen Platon”, in: *Museum Helveticum* 21, 1964, 137-167.
- _____, “Altes und neues Platonbild”, in: *Méthexis* 6, 1993, 95-114.
- _____, “Das neue Platonbild”, in: *Zeitschrift für philosophische Forschung* 48, 1994, 1-20.
- _____, “Platons ungeschriebene Lehre”, in: Th. Kobusch/B. Mojsisch(Hg.), *Platon. Seine Dialoge in der Sicht der neueren Forschung*, Darmstadt 1996, 249-275.
- _____, “Platons Philosophie der Prinzipien”, in: *Platonismus im Orient und Okzident*, hrsgg. von R. G. Khoury/J. Halfwassen, Heidelberg 2005, 13-26.
- Reale, G., *Zu einer neuen Interpretation Platons. Eine Auslegung der Metaphysik der grossen Dialogen im Lichte “ungeschriebenen*

- Lehren*”, Paderborn ²2002.
- Richard, M.-D., *L'enseignement oral de Platon: une nouvelle interprétation du platonisme*, Paris 1986.
- Szlezák, Th. A., *Platon und die Schriftlichkeit der Philosophie. Interpretationen zu den frühen und mittleren Dialogen*, Berlin-New York 1985.
- _____, *Platon lesen*, Stuttgart-Bad Cannstatt, 1993 [= 『플라톤 읽기』, 임성철 옮김(서울 2001)].
- _____, “Schleiermachers <<Einleitung>> zur Platon-Übersetzung von 1804. Ein Vergleich mit Tiedemann und Tennemann”, in: *Antike und Abendland* 43, 1997, 46-62.
- _____, “Friedrich Schleiermacher und das Platonbild des 19. und 20. Jahrhunderts”, in: J. Rohls/G. Wenz(Hg.), *Protestantismus und deutsche Literatur*, Göttingen 2004, 125-144[= <http://www3.nd.edu/~plato/plato2issue/Szlezak.htm>, 검색일자: 2014년 4월 1일].
- Villers, J., *Das Paradigma des Alphabets. Platon und die Schriftbedingtheit der Philosophie*, Würzburg 2005.

Zum hermeneutischen Prinzip der platonischen Dialoge (II)

- im Hinblick auf das hermeneutische Grundverständnis von Fr. Schleiermacher und seine gedanklichen Hintergründe & die hermeneutische Reflexion über Esoterik und Exoterik der platonischen Dialoge

Rhim, Sung-Chul (Kyonggi Univ.)

Dies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Untersuchung der Grundlinie und des Fundaments der hermeneutischen Stellungnahme von Fr. Schleiermacher im Rahmen der platonischen Dialoge und versucht einen hermeneutischen Sinn von Esoterik und Exoterik seiner Dialoge zu verstehen. Und es wird dazu noch erhellt, inwieweit Platon die Bedeutung seiner hermeneutischen Reflexion vom *Symposion* mit der Schriftkritik vom *Phaidros* verbindet. Die entwicklungsentsprechende Position von F. Schlegel und Fr. Schleiermacher zeigt uns ein hermeneutisches Prinzip, dass man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Platon durch die innere Geschichte des philosophischen Gedankens und durch die innere Esoterik, die für das Charakteristikum des Hörers gilt, feststellt. Das Öffnen der Dialoge bedeutet aber nicht das Ausklammern der Ungeschriebenen, sondern die anhaltende und beständige Anteilnahme in die Richtung auf das höhere Erkenntnisniveau auf dem selben Weg der literarischen Dialoge und der mündlichen Dialektik. Das hermeneutische Charakteristikum des Schleiermacher übersieht die Deutung der inneren Oralität des platonischen Literaturbegriffs. Die Struktur des Äusseren und des Inneren der literarischen Darstellung vom *Symposion* des Platon ist mit der Struktur der literarischen Darstellung

als das Äussere und das Spiel, und der mündlichen Dialektik als das Innere vom *Phaidros* identisch. Nach Platon setzt die Oralität die Personalität, die Langfristigkeit und die Rückkopplung des Verstehens in der Kommunikation voraus. Die Vermittlung der höchsten Erkenntnis bei Platon ist nicht von der Wiedererinnerung und der Konservierung der Schrift, sondern von der Oralität abhängig. Die Betrachtung zur Philosophie des historischen Platon macht das Geschriebene und das Ungeschriebene auf dem Weg des hermeneutischen Zirkels miteinander verstehbar. Schliesslich lässt sich sagen, dass das Verstehen der Rezeptionsästhetik unter dem prinzipientheoretischen Aspekt das hermeneutische Prinzip der platonischen Dialoge in platonischer Hinsicht besagt.

Key words: Platon, Schleiermacher, Schlegel, Fichte, mündliche Dialektik, Rezeptionsästhetik, Esoterik, Exoterik, Literaturbegriff, Philosophiebegriff, innere Oralität, *geloion*, *paidia*, *spoudaion*, Schriftkritik, Prinzipientheoretischer Aspekt, hermeneutischer Zirkel

임성철 e-mail: sungchul-rhim@hanmail.net

투 고 일	2014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4년 04월 27일
게재확정	2014년 05월 13일